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3>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⑦

지관을 쌍수해야 정혜가 평등

若於坐禪時 雖為對治心浮動故修正 而心不住 亦無法利 當試修觀 若於觀中 即覺心神明 寂然安穩 當知宜觀 即當用觀安心 是則略說 隨便宜修正觀相 但須善約 便宜修正 則心神安隱 煩惱息 證諸法門也

앞에서는 편의를 따라 지 수행하는 측면에서 밝혔으므로 편의를 따라 관 수행하는 것에 대해 밝히겠다.

수행자가 좌선할 때 지 수행을 뒤야 들뜨고 혼침에 빠지는 병마를 대치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들뜨고 인주되지 않으면 그때엔 시험 삼아 관 수행을 뒤야야만 한다.

관 수행을 뒤을 때에 마음과 정신이 맑고 청정하고 담적하고 안온하다는 것을 자각해서 안다면 관 수행과 서로 호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 수행으로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편의를 따라 지관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지관을 수습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훌륭한 솜씨로 편리하고 알맞은 곳에 합치하여 수행을 하면 마음과 정신이 안정되며 번뇌의 환란이 식멸하여 마하반야바라밀도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

四對治定中細心修正觀 所謂行者先止觀 對破亂 亂心既息 即得入定 定心細故 覺身空寂 受於快樂 或利便心發 能以細心取於偏邪之理 若不知定心 止息虛誑 必生貧著 若生貪著 執以為實 若知虛推不實 如愛見二煩惱不起 是為修正 雖復修正 若心猶著愛見 結業不息 爾時應當修觀 觀於定中細心 若不見定中細心 即不執著定見 若不執著定見 則愛見煩惱業悉皆摧滅 是名修觀 此則略說對治定中細心修正觀相 分別止觀方法 並同於前 但以破定見微細之失為異也

네 번째로 오랜 수행을 뒤은 사람이 대처하는 것에 대해 밝히고 있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병통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종류의 경계는 가장 미세하여 거친 마음으로는 쉽사리 인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거칠고 혼란한 망상을 타파하면 들뜨고 요동하는 망상이 소멸된다. 이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선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선정 속의 마음은 미세하기만 하다. 따라서 공공적하여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이롭고 편리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여 끝내는 선정가운데서 종횡으로 망상의 헤아림이 일어나 지견이 무더기로 일어나게 된다.

미세한 마음은 선정경계와 서로 호응하기 때문에 미세한 마음으로 산을 생각하면 즉시 산이 보이고, 미세한 마음으로 물을 생각하면 바로 물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이것을 특수하게 뛰어난 경계로 여기고 편협하고 샷된 이치를 취하여 그것을 실체라고 집착하면서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것이 선정의 마음에 머무는 한 점의 허망한 경계로서 법진의 그림자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만일 이를 실체라고 고집하면 끝내 사견의 재앙에 떨어지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 문제를 두고 능엄경에서는 “지견에 아

하고 생각 생각 집착심을 일으키면 사혹과 견혹으로 업이 맺히고 사혹과 견혹으로 맺힌 업의 번뇌가 그대로 쉬지 않는다.

수행자가 지 수행을 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관 수행을 해서 관조해야만 한다. 관조를 통해 선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미세한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신을 밝히고 고요한 가운데 관조를 일으키기를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 빈틈없이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간단없이 은미하게 관조하고 나면 선정 속에서 미세한 마음은 끝내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미세한 마음 가운데서 관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세간의 외도들은 약간의 선정 맛을 보면 바로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견을 일으켜 인과를 무시하며 지관수행을 통해서 대처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체라고 집착하게 된다. 이는 미혹한 가운데 갑절이나 미혹한 사람이다.

관찰하는 지혜가 희미하고 적은 사람은 지수행만 있고 관수행이 없으며 선정이 지혜보다 많다. 반대로 선정의 마음이 희미하고 적은 사람은 관수행만 있고 지수행이 없어 지혜가 선정보다 많다.

선정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이것은 바짜 마른 선정이며, 지혜만 있고 선정이 없으면 이것 역시 미친 지혜이다. 번뇌 결사를 끊어 제거하고 모든 법문을 증득하려 한다면 지관을 쌍으로 일제히 수행하지 않으면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지 못하다.

수행자에 있어서는 지관이라고 부르고, 깨달음에 있어서는 정혜라고 한다. 지관이라는 두 가지 법은 색의 두 날개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불리하면 양쪽이 다 손상되고 합하면 쌍으로 아름답다. 따라서 밀실 속의 등불로서 비유하여 지관을 평등하게 뒤야야만 생사고해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지관을 쌍수하여 정혜가 평등한 사람은 어떠한 경지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한 구절의 아미타불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미타는 번역하면 시간적으로는 무량수불이고, 공간적으로는 무량광불이다. 여기에서 광명은 지혜에 해당되고, 수명은 선정에 해당된다.

광명과 수행이 들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고 오묘한 지관이다. 가령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한 구절을 열불할 때에 열불하는 마음과 열불대상으로 떠오른 부처님을 끝내 얻지 못하는 것은 지수행에 해당되고, 열불하는 마음과 대상으로 떠오른 부처님이 분명하게 떠오른 것은 관수행에 해당된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역력 분명할 때에 그 자체를 끝내 얻지 못하며, 그 자체를 얻지 못할 때가 원래 역력 분명하여 그 자리가 지에 상주하고 관에 상주하며, 관에 상주하고 지에 상주하여 지와 관이 평등하고 정혜가 둘이 아닌 무량광수불이 된다는 점이다.

수행자가 훌륭하게 열불법문으로써 지관수행을 하여 일생을 부질없이 보내지 않는다면 현재나 사후에 결정코 성불하게 될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미세한 선정에서 세밀하게 관찰해야 번뇌 결사를 단절하여 마음이 청정

는 마음을 수습하면 그것이 바로 무명의 근본이다”라고 하였고 또 “성인의 마음에 그친다면 훌륭한 경계이겠지만 성인이라는 견해를 일으킨다면 못 사건을 받아들일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 같은 경전의 내용은 모두가 좌선하는 사람을 혼계하는 진실한 말씀이므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만일 이 허망한 경계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료하게 안다면 탐심을 일으키지 않고, 분별마저 일으키지 않으면 견혹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탐욕의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혹의 번뇌가 일어날 곳이 없는 것이다.

견혹과 사혹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는데, 이것이 지수행이다.

그러나 다시 지를 뒤야 망상을 정지했다 해도 자기 마음속에 허깨비 경계를 제거하지 못

五為均齊定慧修正觀 行者於坐禪中因修正故 或因修觀 而入禪定 雖得入定 而無觀慧 是為癡定 不能斷結 或觀慧微少 即不能發起真慧 斷諸結使 發諸法門 爾時應當修觀破析 則定慧均等 能斷結使 證諸法門 行者於坐禪時 因修觀故 而心豁然開悟 智慧分明 而定心微少 心則動散 如風中燈 照物不了 不能出離生死 爾時應當復修於止 以修正故 則得定心 如密室中燈 即能破暗 照物分明 是則略說均齊定慧二法修正觀也 行者若能如是於端身正坐之中 善用此五番修正觀意 取捨不失其宜 當知是人善修佛法 能善修故 必於一生不空過也

다섯 번째로 뒤는 지관에 대해 말해보자. 번뇌를 끊지 못한 사람은 번뇌의 결사(結使)를 끊어 제거하지 못하지만 모든 법문을 증득한 사람은 즉시 원교·돈교의 바라밀법문을 증득하게 된다.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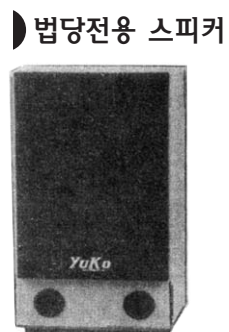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일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닝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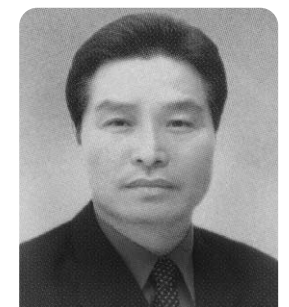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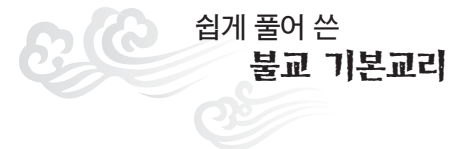
◆황등석: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반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 산 수입 등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1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현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로
- 대한방업진흥공사 석공예기공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독교대학교 명예교수
- 서울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외외 돌문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삼성(三性)의 의미

유식학에서는 '식'에는 세 가지 성질이 있으며, 동시에 세 가지 성질은 없다는 학설이 있습니다(삼유성삼무성(三有性三無性)).

삼성(三性)이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의타기성(依他起性), 원성실성(圓成實性)을 말합니다.

우선 변계소집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변계소집성은 능변계(能遍計), 소변계(所遍計), 변계소집(遍計所執)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첫 번째 능변계는 제육의식의 활동에 국한되는데, 변계라는 두 글자로서 다른 심식활동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변(遍)은 두루 보편하다는 뜻이며 계(計)는 헤아린다는 의미인데, 제육의식은 다른 식과는 달리 일체법을 시간과 공간, 그 어디에도 장애함이 없이 두루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변계는 의타기성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일체의 심왕과 심소속 각각 견상이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육능변계식의 인식대상 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견상이분이 상대동시의존관계인 의타기성으로 일어나면 제육능변계식의 인식대상경인 소변계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변계소집은 의타기성인 소변계의 허상을 허망하게 집착함으로써 실아실법으로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능변계식이 소변계식에서 자체의 허망한 집착성을 따라 잘못 오해를 일으키는 심리상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인식대상인 견상이분, 즉 의타기성에 있어서 그것은 인연으로 일어난 허깨비임을 여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변계소집성은 단지 제육능변계식으로 인식대상인 소변계법, 즉 견상이분의타기성에 있어서 우리의 심식이 활동하는 인연으로 일어난 허깨비임을 여실히 모르든 잘못 오해를 일으킨 모습입니다. 즉 실아가 아닌 견분(見分)에서 실아로 헤아리고 실법이 아닌 상분(相分)에서 그것을 실법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착대상인 아법상을 소집(所執)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아법은 우리의 심식활동의 모습인 견상이분의 작용을 떠나선 따로의 모습이 본래 없다(情有無無)는 것이 유식학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철쭉같이 어두운 밤 잠자기 목전에 나타난 나뭇등걸을 사람인양 잘못 착각을 일으켰을 경우, 착각을 일으킨 마음이 능변계이고, 나뭇등걸이 소변계이며, 사람은 대상상을 굳게 집착하는 변계소집성에 해당됩니다.

■정리=張如舟